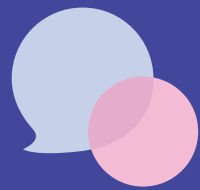


2022년 7월 호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



목차

국어 배우기_문치가 알려주는 국어 말뭉치 말뭉치 활용 도구	3쪽
국어 배우기_문장 다듬기 목적어와 서술어는 호응해야 해요!	9쪽
국어 알리기_살아 숨 쉬는 지역어 신석정 시 둘러보기	11쪽
국어 알리기_이름이가 전하는 국어 소식 농인 관람객과 수어로 인사하고 싶어요	13쪽
국어 알리기_한국어 교육, 그리고 우리 친절한 ‘한국어 선생님’	15쪽
국어로 함께하기 우리말 풀기	43쪽

국어 배우기_아 다르고 어 다른 우리말 불법과 위법과 범법, 같은 듯 다른 쓰임새	21쪽
국어 배우기_문장 다듬기 번역 투 표현을 고쳐써요!	25쪽
국어 알리기_살아 숨 쉬는 지역어 유치환 시 둘러보기	27쪽
국어 알리기_이름이가 전하는 국어 소식 최초의 국어 대사전 『큰사전』, 우리말샘 속으로	29쪽
국어 알리기_우리말 속 차별 언어 성별과 관련된 표현	31쪽
국어 알리기_우리말, 그리고 사람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 문장을 위하여	33쪽
국어로 함께하기 우리말 풀기	47쪽





말뭉치 활용 도구

최재웅(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말뭉치는 우선은 구축하는 것이 문제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 때론 더 큰 문제는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이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주요 소재로 ‘용례색인’(concordance) 및 관련 기법을 통해 어휘의 분포적 특징을 포착하는 방법과 기술의 발전을 조감해 봄으로써 언어학자들이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그런 기술의 변화에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 용례색인 및 관련 후속 기법

말뭉치 언어학에서는 말뭉치에서 해당 언어의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주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색과 관련하여 떠올리게 되는 의문으로 최소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패턴을 찾는 방법/절차는 무엇인가?

찾아낸 패턴의 모습이 어떠하며, 패턴의 활용 방법은 무엇인가?

퍼스(J. Firth)는 일찍이 말뭉치 언어학의 토대를 마련하고 큰 방향을 제시한 학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실제 텍스트 자료에서 대상 어휘가 쓰인 국지적 맥락이 해당 어휘의 의미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후대에 많이 인용이 되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살펴보자.

주변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대상 단어를 파악할 수 있다. -퍼스, 1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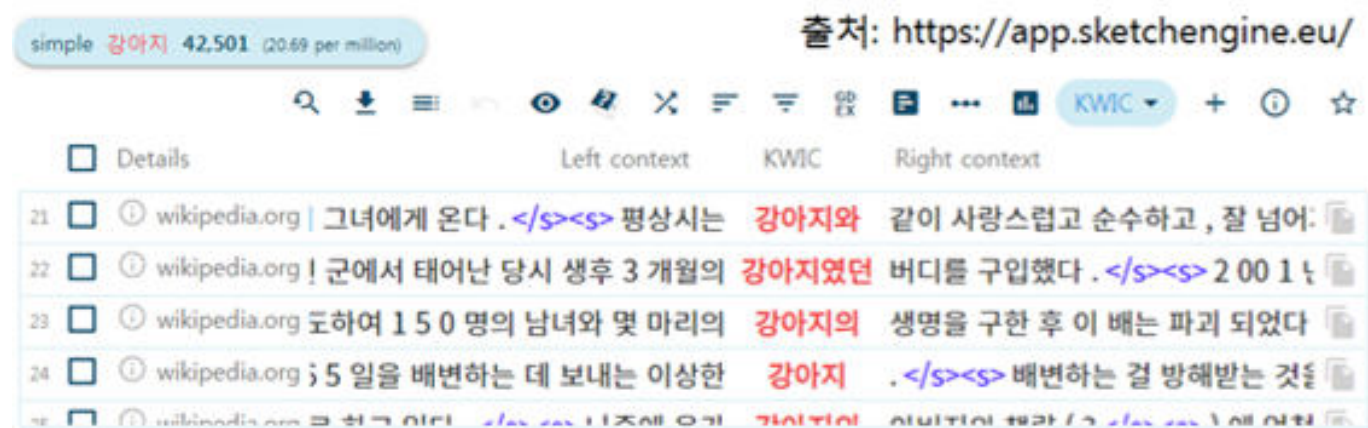
위 가설은 일견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제시된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자 할 때는 여러 추가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의 가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질문으로 쪼개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주변/맥락’이란? ‘보’는 방법은? ‘파악되는’ 것은?

위와 같은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는 퍼스의 가설을 구체화한 접근법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본다. 첫 번째는 용례색인을 통한 수작업 분석, 두 번째는 워드스케치를 이용한 분포적 특성 요약 분석, 그리고 세 번째는 워드임베딩을 통한 워드벡터 산출 방식이다.

■ 용례색인을 통한 수작업 분석

“코퍼스적 접근의 중심”(매케너리&하디 2013/2018)이라고까지 언급되는 용례색인 기법 및 용례색인기 (concordancer)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말뭉치 이용 도구의 핵심 기능이다. 말뭉치 도구 대부분이 용례색인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사전편찬 등의 작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오고 있다.



▲ [그림 1] 용례색인의 예

■ 어휘 연계성 측정 기반 워드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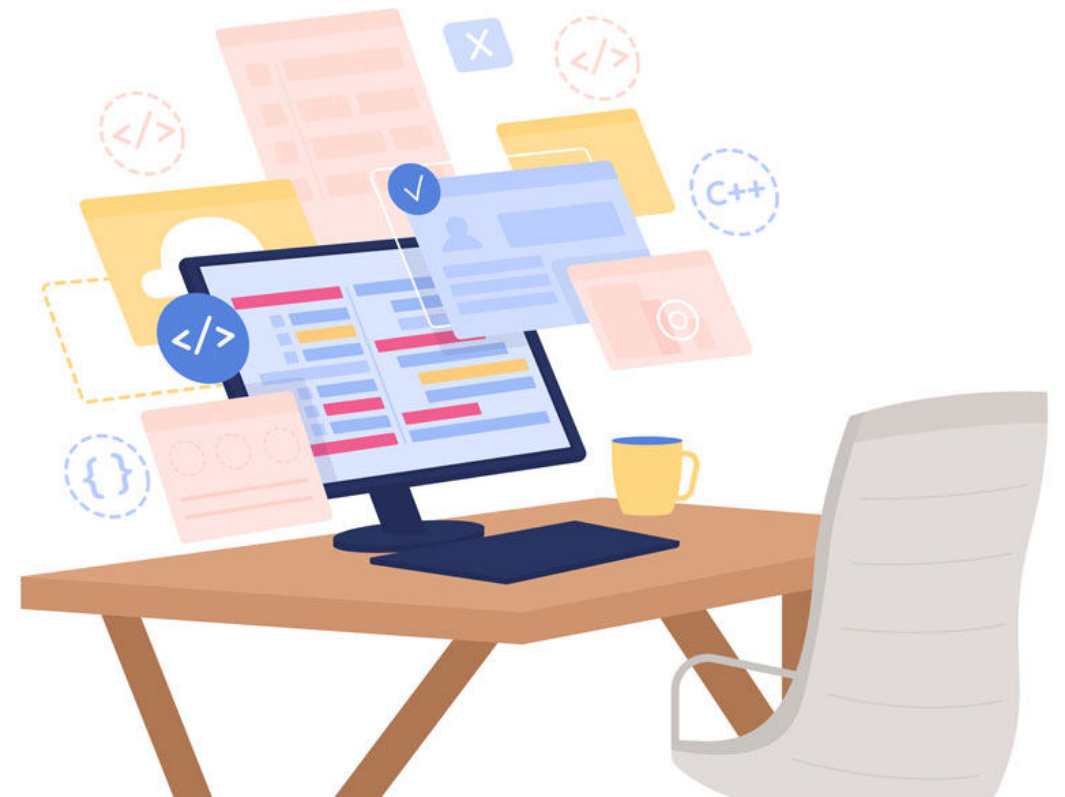
검색어가 주어지면 그 맥락에 나오는 주변어들을 용례별로 찾아서 보여 주는 것이 용례색인기가 하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주변어들의 분포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주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활용 기술 발전을 위한 당면한 문제가 될 것이다.

용례별로 검색어 주변에 포진한 단어들을 살펴보면 어떤 것은 검색어와 상관성이 더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어떤 것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등, 검색어와 주변어 사이의 상관성이 주변어별로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구체화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주변어 중에서도 검색어와 특징적으로, 달리 말해서 ‘전형적’으로 잘 어울리는 단어들을 체계적으로 선별해 내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어울린다는 말을 ‘기대보다 많이 나온다’는 말로 바꾸어 보자. 그러면 ‘전형성’ (typicality)을 숫자로 변환시킬 가능성이 생긴다. 검색어 X 주변에 어떤 어휘 Y가 기대보다 자주 나타난다면 그러한 특징을 X의 맥락정보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곧 언어 (collocation)관계 발견에 활용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다음 그림을 보면 강아지 주변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어휘들이 제시되어 있다.

verb_left			verb_right			adj_right		
짖	227	6.71	짖	75	5.5	귀엽	752	6.26
키우	2,001	5.88	키우	1,001	4.98	귀여운 강아지		
데리	624	5.14	기르	275	4.12	마렵	28	6.03
강아지를 데리고			받기	38	4.08	꽤 마려운 강아지처럼		
쓰다듬	72	4.93				순하	41	4.9
깁깁거리	27	4.43						

▲ [그림 2] ‘강아지’ 워드스케치 (WordSketch, Kilgarrieff et al. 2004)

그런데 말뭉치로부터 언어의 통사-의미적 패턴을 찾아가는 작업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워드스케치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용례색인이나 워드스케치는 검색어 중심의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검색어가 주어지면 해당 검색어의 워드스케치를 보여 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특정 워드스케치를 보고 해당 검색어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는 없을까? 또는 워드스케치끼리 상호 비교가 가능할까? 최근에 개발된 워드벡터는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 워드임베딩을 통한 워드벡터 구축

자연언어 처리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토대 중 하나가 워드임베딩 기법을 이용하여 구축된 워드벡터다. 큰 말뭉치를 입력 자료로 하고 신경망 학습을 거치면 말뭉치에 사용된 어휘별로 벡터 값이 할당된다. 벡터는 미리 지정된 길이대로 구성되므로 모든 어휘는 똑같은 길이의 벡터가 된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수의 연쇄일 뿐인 워드벡터가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상당 수준으로 정확하게 해당 어휘의 의미적 특성을 담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벡터 값 할당에 재료가 되는 것이 어휘별로 그 주변에 나오는 단어들이다. 따라서 워드임베딩은 ‘주변’ 개념의 벡터화로 볼 수 있다. 수리-물리학적 개념인 벡터공간 이론은 이미 잘 확립되어 있고, 벡터를 이용한 여러 다양한 계산법이 밝혀져 있다.

‘의미’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처럼 의미를 아는 듯이 벡터공간 내에 개별 어휘의 좌표를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워드임베딩의 매력으로, 공개 당시부터 경쟁 시스템을 압도하는 성능으로 자연언어처리 분야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아래 예는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 0-1) 계산 방식으로 ‘전혀’에 근접한 워드벡터를 찾아내어 가장 근접한 것부터 10개를 찾아 제시해 놓은 것이다.



Word: 전혀01MAG Position in vocabulary:1159

Word	Cos. Dist.	Word	Cos. Dist.
별로01MAG	0.751	별다르01VA	0.599
아무런MM	0.656	알절02MAG	0.567
별반01MAG	0.641	아무01MM	0.563
아무것NNG	0.622	그다지MAG	0.546
별02MM	0.607	도무지02MAG	0.531

▲ [표 1] ‘전혀_01’의 최상위 유사 어휘 목록(최재웅 2018: 325)

문법적으로 흥미로워 언어학에서 많이 논의되는 부정극어 ‘전혀’에 근접해 있는 어휘 벡터들이 각각 해당 어휘의 의미-분포적 특성과 유사하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 마무리

이 글에서 논한 세 가지 말뭉치 분석 기법의 공통점은 퍼스의 분포 가설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반영하거나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그 셋 사이의 차이점도 작지 않다. 자료 가공의 차원에서는 ‘용례색인<워드스케치<워드벡터’ 순으로 워드벡터가 난이도 면에서도 가장 높고 추상성 면에서도 가장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그 자체만으로는 직관적인 이해가 불가능하다. 또한 결과물 활용도 면에서는 ‘워드벡터<워드스케치<용례색인’ 순으로 워드벡터의 활용 가능성이 탁월하다. 특히 워드벡터 방식은 벡터를 다룰 수 있는 수많은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다. 이는 의미를 동일 차원의 벡터로 변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어휘별 통사-의미적인 패턴을 벡터로 수렴시킴으로서 다양한 방식의 ‘의미 다루기’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워드임베딩 기법은 최근에 소개된 BERT, GPT 등 트랜스포머(transformer) 모델을 통해 또 한 단계의 진전을 이루어 냈다. 그리고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파이선이나 아르(R)와 같은 스크립트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더글러스 비버(D.Biber)가 주장하였듯이 말뭉치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언어학자들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장 다듬기

목적어와 서술어는 호응해야 해요!

국립국어원

문장 다듬기

아버지께서는 ~~신문과~~
→ **신문을 읽으면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계신다.

'신문'과 '시청하다'가 호응하지 않습니다.
'신문'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으므로
'신문'을 '신문을 읽으면서'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국어원

문장 다듬기

나는 체력을 기르려고
평일에는 수영을, → **수영을 하고,**
주말에는 산을 오른다.

위 문장에서는 '수영을'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습니다.
'오른다'는 '수영을'과 호응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서술어가 필요합니다.

국립국어원

문장 다듬기

그 단체는 지구 온난화의 ~~문제점과~~
→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위 문장에서 '문제점'과 '마련한다'는 의미상 호응하지 않습니다.
'문제점'과 적절히 호응하는 서술어를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국립국어원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공공언어 바로 쓰기”를 찾아보세요!

국립국어원 누리집
심표, 마침표.

문학작품속

살아 숨 쉬는 지역어

- 신석정 시 둘러보기 -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방금 항해를 건너왔다는 바람이 **술찬히** 머언길에 지친 다리를 멈추고 나의 작은 침실의 문을 조심히 흔들고 있습니다
<나의 침실의 문을 흔드는 자는 누구냐?> 중

지역어

술찬히

→

대응 표준어

상당히

살펴보기

'술찬하다'는 '매우 많다'를 뜻하는 전라 방언입니다.
'대단하다'라는 뜻도 있어 매우 다양하게 쓰입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술건너 자개처럼 번적이는 바다로 저녁날이 소리없이 넘어가고 **해성해성**한 가을님 바람에 흔들리는 새에는 붉은노을에 단장한 저녁한울이 그 고혼얼골을 내여놓는다
<한마리의 얼굴> 중

지역어

해성해성하다

→

대응 표준어

해심해심하다

살펴보기

'해성해성하다'는 '춤추하게 짜이지 않고 험겁고 허전한 느낌이 있는 모양새'를 뜻하는 말입니다.
'해성하다', '해성해성'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뜻이 같은 표준어로는 '해심해심하다'가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살거와 쑤시거 전을 **찌웃찌웃** 굽어보며 개미같이 웅개 웅개 모여서야 하는 것입니까?
<구렁이> 중

지역어

찌웃찌웃

→

대응 표준어

기웃기웃

살펴보기

'찌웃찌웃' 무엇을 보려고 고개나 몸 따위를 이쪽저쪽으로 조금씩 자주 기울이는 모양을 묘사하는 전라 방언입니다.
뜻이 비슷한 표준어로는 '기웃기웃'이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작가 정보

신석정 (1907~1974) 시인은 전북 부안 출신입니다.

1924년에 《조선일보》에 시 「기우는 해」를 발표했습니다.
《시문학》의 동인으로 활동했으며 목가적인 시를 주로 썼습니다.

시 작품으로는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들굴에 서서> 등이 있습니다.

문학 속 지역어가 더 궁금하다면
국립국어원 '지역어 종합 정보'를 살펴보세요.

12

농인 관람객과 수어로 인사하고 싶어요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은 6월 3일 농아인의 날을 기념하여 6월 한 달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4개 문화예술기관 종사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를 개최하였다.

이번 ‘찾아가는 한국수어 문화학교’는 지난 6월 8일 국립민속박물관을 시작으로 국립국악원(6. 15.), 국립현대미술관(6. 20. 등 4회), 국립극장(6. 29.) 등에서 실시되었다. 한국어와 동등한 한국수어의 언어적 지위를 선언한 ‘한국수화언어법’(16. 2. 3. 제정)의 취지를 공유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의 특성,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을 대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예절을 함께 배웠다.



▲ 국립극장 안내원들이 수어로 ‘만나다’를 표현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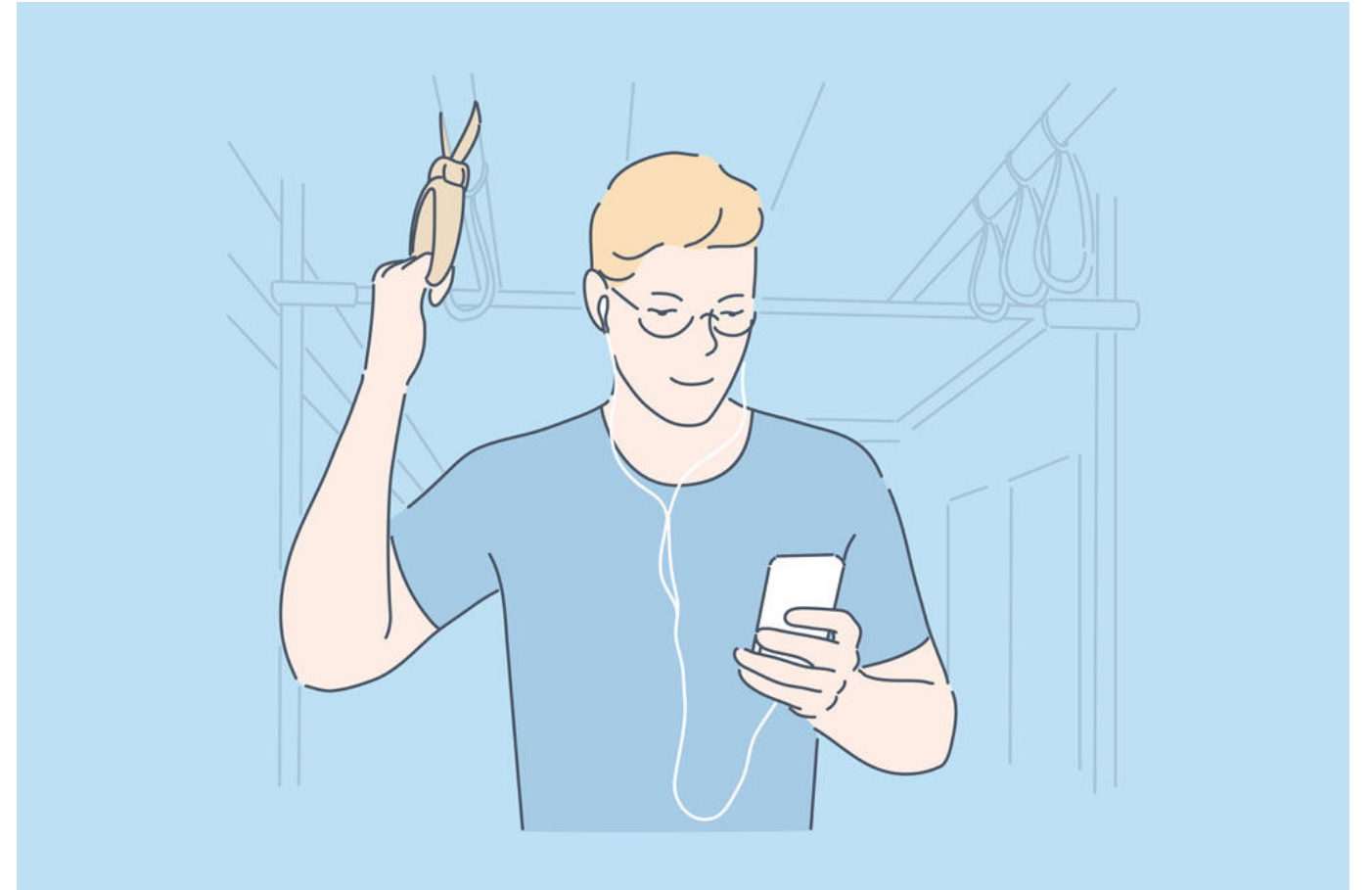
■ 한국수어를 배우며 손과 눈이 반짝반짝

음성언어와 달리 손과 몸을 움직이며 역동적으로 배우는 수어에 대한 재미와 관심으로 현장은 열기가 가득했다. 교육에 참여한 국립극장 관계자는 평소 접하지 못했던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알게 된 계기가 되었고, 오늘 배운 한국수어 인사말로 농인 관람객을 반갑게 맞이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국립국어원은 정부의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의 실현’을 위해 하반기에도 문체부 문화예술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농인과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농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친절한 ‘한국어 선생님’

이미향(영남대 국제학부 교수)



영국에는 런던을 상징하는 2층 버스가 있다. 지금 저 멀리서 버스가 온다.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던 나는 버스를 탄다. 자, 이제 어디에 앉을 것인가? 잠시 마음을 정하고 자리에 앉자.

오늘은 ‘버스 자리와 성격’의 상관성을 확인한 한 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우선, 버스의 가장 앞에 앉았는가? 그렇다면 비교적 외향적인 편이다. 특히 버스 2층의 맨 앞자리를 선호한다면 리더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만약 뒷자리에 앉았다면 고독을 즐기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혹시 1층과 2층의 계단에 앉았다면 그는 스스로를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리고 버스의 여러 자리 중에서도 중간쯤을 선호하는 사람은 소통력이 큰 사람이라고 했다. 실제로 강의 중 대학생들에게 손을 들어보게 했는데, 대학생들은 이런 설명이 어느 정도 맞는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 결과가 기가 막히게 맞는 사례를 한국의 버스 안에서 만났다. 차에 막 올라탄 승객이 잔돈이 없는 버스 기사와 승강이를 벌이는 상황이었다. 그 찰나, 버스 중간쯤에 앉은 한 아주머니가 ‘누가 돈 바꿔 줄 분 없으세요?’라고 하더니, 승객들 가운데서 기어이 잔돈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소통력 강한 한 사람의 중재로 어수선했던 버스는 곧 평화를 되찾았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있던 한 이방인이 놀란 얼굴을 한다. ‘한국은 이런 것이 가능하구나.’ 하는 표정으로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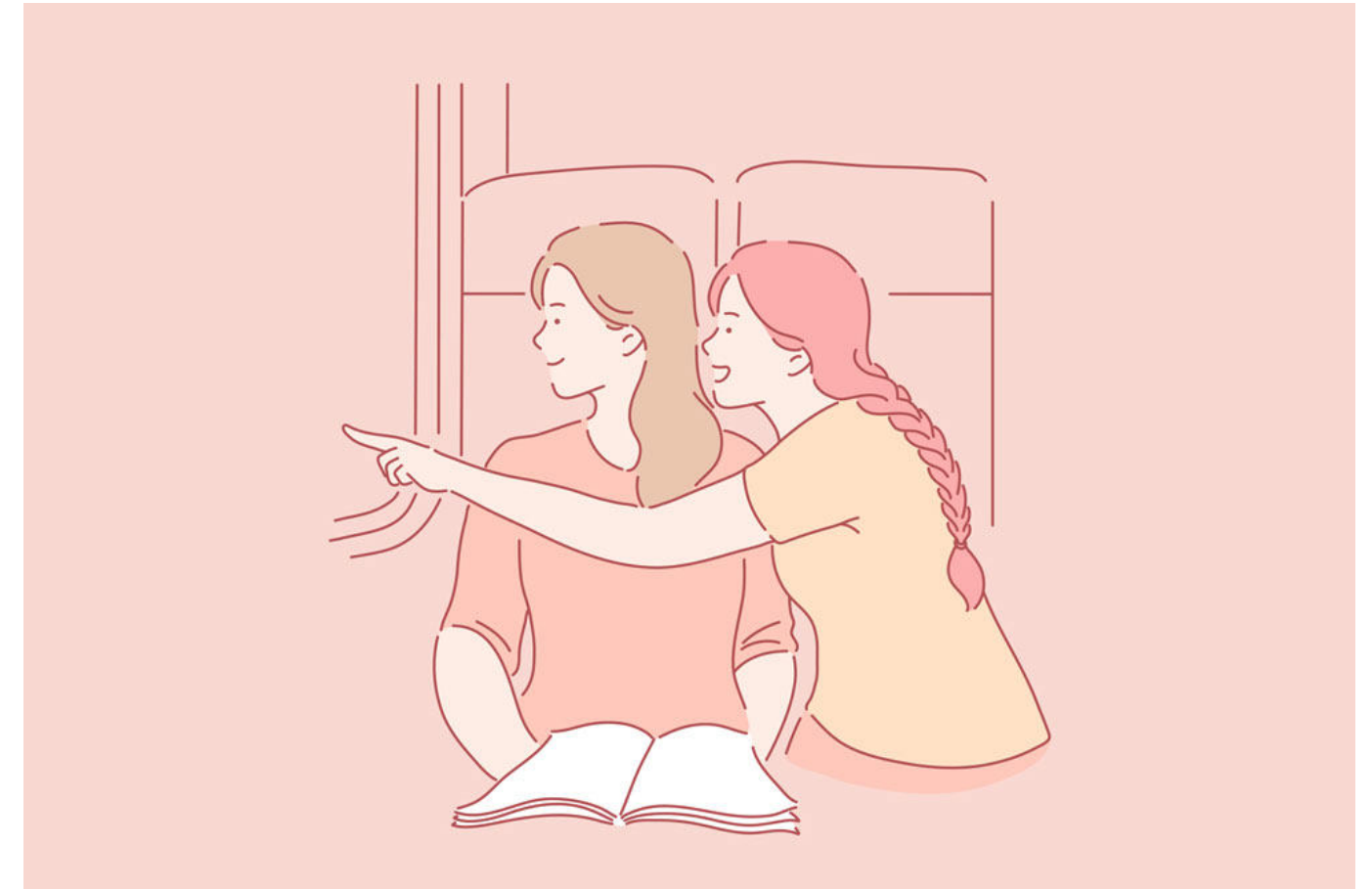


한국은 사회 구성원이 긴밀히 연결된 고맥락 사회이다. 학문적인 견해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이런 양상을 확인할 때가 많으니 이견이 없을 일이다. 그리고 보통 이런 모습을 두고 정이 많다거나 친절하다고 한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이것이 사회문화적 압박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이곳저곳을 찾아보면 이웃에 정이 많은 한국인, 외국인에게 친절한국인이라는 제목의 편집 영상이 무수히 쏟아진다.

사전적 정의로 ‘정’이란 사랑이나 친근감을 느끼는 마음이다. 같은 단어로 영어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면 ‘애착, 보살핌’에 가까운 것으로 나온다. 한자를 모르는 서양의 언어라서 ‘정’ 자체에 대한 해석보다는 이어질 만한 마음 상태나 연상되는 행위로 풀이한 것일까? 혹은 실제로 한국인을 만난 경험을 기억하고 되새긴 풀이일까? 더 놀라운 것은, ‘정’은 원래 한자어인데도 중국어 ‘정’과 속뜻이 같지 않다는 점이다. 한 예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로 유명한 한 초코과자가 있다. 포장지에 크게 쓴 ‘정(情)’ 하나로 한국 과자 시장에서 성공한 이력을 자랑하는 그 과자가 정작 중국에서 광고할 때는 ‘좋은 친구’란 표현을 썼다. 두 나라에서 정의 속뜻과 범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한국 사회에 문화적으로 깊이 자리 잡은 ‘정’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현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한국어를 가르치는 책에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 한국어책에 흔히 나오는 ‘근거 없는 주장 두 가지’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하나는 ‘한국어는 어렵지만 재미있어요.’라는 예문이다. 문법 ‘-지만’을 배우고 연습할 때 많이 쓰이는 예문인데, 외국어 학습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려운 일이고 원래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재미가 없는 법이다. 어려운 것이니 즐겁게 배우라는 유머로 이해해야 할까?

다른 하나는 ‘한국어 선생님은 친절해요.’라는 예문이다. ‘예쁘다’, ‘아름답다’와 같은 외모로 평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나온 예문이기도 하다. 교직은 천직이라는 말도 있듯, 교실에서 학습자들과 밀고 당기면서도 가르쳐 내는 일은 적성에 맞지 않으면 못 할 일이다. ‘친절하다’는 것은 교실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한국어 선생님에 대한 좋은 평가라는 점도 안다. 그렇지만 ‘친절하다’는 적성이 아니라 성격을 말하는 표현으로, 직업이 같다고 해서 사람의 성격이 같을 수 있을까?



‘친절하다’는 초급 단계에서 형용사가 들어가는 문장을 연습하기 위해 한국어 책에 자주 나온다. 한국어 교육 내용 중 가르칠 어휘 10,635개를 선정한 어휘 목록에서 ‘친절하다, 친하다, 친구’는 한국어의 가장 초급인 1급 어휘로 등재되어 있다. 1급 어휘는 735개에 불과하므로 예시 문장을 생성하거나 연습할 때 자주 활용될 수밖에 없다. 흥미로운 것은 ‘불친절하다’는 중급에서도 높은 단계에 해당하는 4급 어휘라는 점이다. 주로 학습자에게 유용하거나 문화적으로 적합한 것이 교육용 어휘로 선정되는데, 친절함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범문화적으로 가치로운 것은 사실이다. 어쩌면 관계 중심적인 고맥락 사회인 한국에서 ‘친절하다’고 말하는 학습자가 ‘불친절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속뜻이 있는 것일까?

한편, 친절함은 한국어 교사에게도 암시적 신호로 작용한다. 직접 눈앞에 있는 초급 교재 다섯 권만 빼 보아도, “누가 친절해요? / 선생님이 친절해요.”, “한국어 선생님은 예쁘고 친절해요.”, “김 선생님은 친절하세요.”와 같은 예문이 쏟아진다. 지금까지 외국어로 8개 언어를 배워봤지만, 외국어 교재에서 이러한 예문이 한국어책만큼 나오지는 않았다고 기억한다.

선생님만이 아니다. “그 가게는 값이 싸요? / 네, 아줌마가 친절하고 값도 싸요.”와 같은 예문에서는 묻는 사람이 요청하지 않은 정보인데도 ‘친절하다’가 포함된다. 한 편지글 예문에서는 “다음 주에 이사할 거예요. 친구 미나 집에서 살 거예요. 미나는 참 좋은 친구예요. 가족도 친절해요.”라며 한국 친구의 가족도 친절의 테두리에 넣었다. 또 다른 책에서는 “부산 사람들은 친절하고 따뜻합니다.”처럼 대도시 시민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이쯤 되면 한국인이란 시민으로서도 누군가의 가족으로서도 친절해야 할뿐더러, 친절이란 특정 직업인으로서도 갖춰야 할 덕목처럼 보인다. 사람이 사람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민간 외교관이라는 직업 정신으로 한국어 선생님이 학생에게 친절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실제로 한국어 선생님 대부분은 충분히 친절하다. 그런데 교사가 갖출 덕목에 친절함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는 교사가 갖출 전문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야기의 핵심은, 사회문화적 특성을 지닌 어떤 말이 이데올로기처럼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독 ‘친절하다’ 하나만이 아니라, 외모지상주의나 성역할 고정관념 등 우리가 주목하고 판단해야 할 말들이 많다. 교과서는 이미 그 자체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어떤 말이 언어 교재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는 더욱 유의해서 살펴야 한다. 오늘 내가 가르칠 부분에서 깊고 더할 부분은 없는지, 익숙한 말이지만 말의 범위와 속뜻을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 확인하는 일은 교사의 몫이다. 우리는 ‘다른 문화에서 성장한 학습자에게 외국어인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이기 때문이다.

불법과 위법과 범법, 같은 듯 다른 쓰임새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제헌절이다.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을 뜻하는 말로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이 있다. 법을 어기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는 ‘범법’, ‘위법’, ‘불법’이 있다.

- 가. 불법/위법/범법 행위
- 나. 불법을/위법을/범법을 저지른다.

불법 행위와 위법 행위, 범법 행위는 모두 법을 어기거나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점에서 뜻이 비슷하다. 또한 불법을 저지르는 것과 위법을 저지르는 것, 범법을 저지르는 것 사이에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음의 예에서 세 단어 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 다. 불법/위법/범법 주차
- 라. 불법/위법/범법 건축물
- 마. 범법자로/불법자로/위법자로 낙인찍히다.

‘불법 주차’는 자연스럽지만 ‘위법 주차’나 ‘범법 주차’는 그렇지 못하고, ‘불법 건축물’과 ‘위법 건축물’은 자연스럽지만 ‘범법 건축물’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범법자’는 자연스럽지만 ‘불법자’나 ‘위법자’는 그렇지 못하다. ‘범법’이 막연히 법을 어기는 행위를 가리키는 데 비해, ‘위법’은 적법하지 못한 상태, 곧 특정 법의 내용에 들어맞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고, ‘불법’은 합법이 아닌 상태, 곧 특정 법을 위반한 상태를 가리킨다.

부연하자면 불법 주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주차를 가리키고,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지은 건축물을 가리키며, 위법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은 받았으나 사후에 법을 위반해 증·개축이나 용도 변경 등을 한 건축물(법률적으로는 ‘위반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가리킨다. 또한 범법자는 특정 법과 상관없이 법을 어긴 사람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법학에서는 위법과 불법을 좀 더 엄밀하게 구별한다. 위법은 어떤 행위가 법질서 전체(실정법 전체와 사회상규)와 모순된 관계에 있는 상태를 뜻하고, 불법은 어떤 행위가 특정 법 규범에 어긋나는 상태를 뜻한다. 위법성의 관념에서는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만 판단할 뿐, 범죄의 질과 양을 따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한 명을 다치게 하든지 열 명을 다치게 하든지 똑같이 위법하다.

그렇지만 불법의 경우에는 행위마다 질과 양이 다르게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한 명을 다치게 한 것보다 열 명을 다치게 한 것이 죄질이 중하게 취급되고, 고의에 의한 불법인지 과실에 의한 불법인지에 따라 양형이 달라진다. 또한 불법은 법률마다 달리 적용되므로, 민법상의 불법이 형법상의 불법이 아닐 수 있다. 가령 채무 불이행은 민법에서는 불법이지만 형법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글: 강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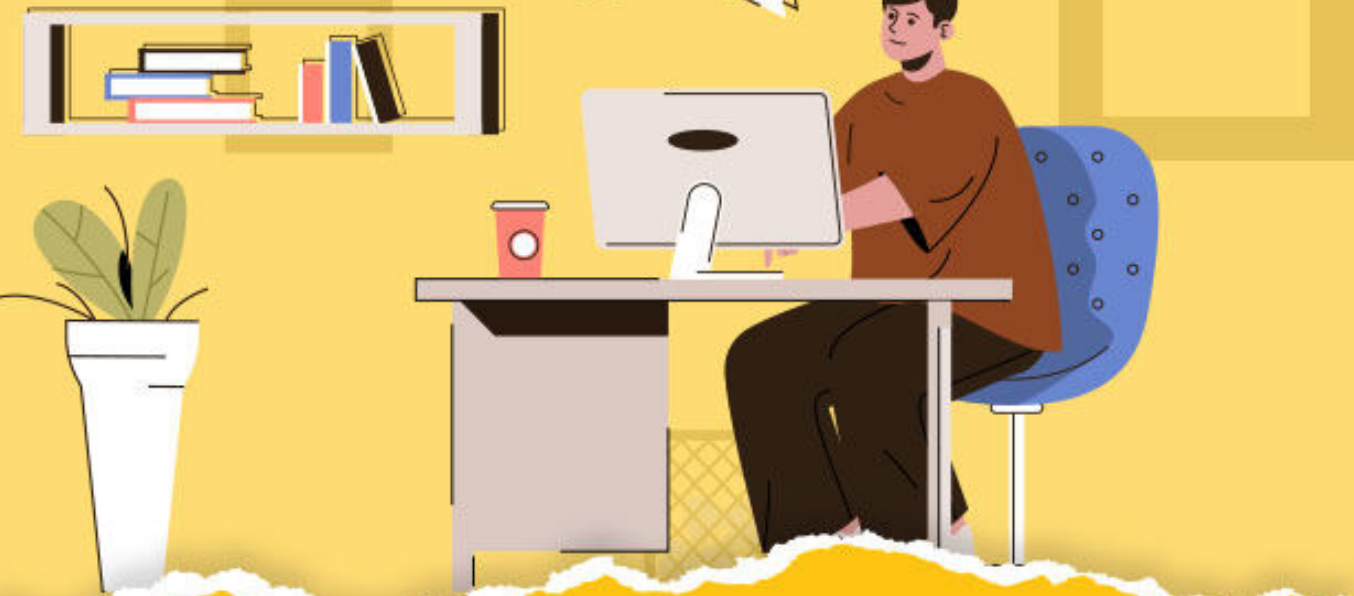
※ 참고 자료

안상순, 『우리말 어감 사전』, 도서출판 유유, 2021.



문장 다듬기

번역 투 표현을 고쳐 써요!



문장 다듬기

이 지침을 통해 → 지침에 따라 / 지침대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주신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을 통해”는 번역 투 표현입니다.
맥락을 고려하여 “~에 따라” 등으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국어원

문장 다듬기

테러로 인한 → 테러로 발생하는 / 테러에 따른 막대한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막고 시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OO청은 최선을 다해서 대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로 인한”은 번역 투 표현입니다.
문맥상 뜻이 비슷하고 더 자연스러운
“~로 발생하는”, “~에 따른” 등으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국어원

문장 다듬기

연락처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 내용에
질문이 더 있을 때만 사용됩니다.

“~에 대해”는 번역 투 표현입니다.
“~에”로 고치면 더 우리말답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국립국어원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공공언어 바로 쓰기”를 찾아보세요!

국립국어원 누리집 주소지
심표, 마침표.

문학 작품 속 살아 숨 쉬는 지역어

- 유치환 시 둘러보기 -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향수는 또한
검정 망토를 쓴 병고 고양이런가
해만 지면 은밀히 기어와
내 대신 내 자리에 **살째기** 않나니

<사항> 중

지역어

살째기

→

대응 표준어

살짝

살펴보기

'살째기'는 '살짝'의 경상 방언입니다.
'살째기'는 '살짝'에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가 결합한 '살짜기'에서
역행동화가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다른 방언형으로는 '살모시', '살곰이' 등이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바람 절로 빛나고 절로 구름 흐르고
종일 두고 우짖고 사는 벌레소리 새소리에
웃티 벗어 팔에 끼고 아아 나는 드디어 예까지 왔고나
마음 외로운 대로 내 푸른 그늘에 앉아 쉬노라면
한 마리 멧새 가지에 와 하염없이 노래부르나니
새야 적은 새야

<새에게> 중

지역어

웃티

→

대응 표준어

웃웃

살펴보기

'웃티'는 위에 입을 웃을 뜻하는 경상 방언입니다.
웃이 같은 표준어로는 '웃웃'이 있습니다.
다른 방언형으로는 '우투리', '웃두리' 등이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고열과 자신의 탐욕에
여지없이 건조 풍화한 녀마의 거리
모두가 허기 걸린 **게사니** 같이 불벼 나는 속을
-칼 가시오!
-칼 가시오!
한 사나이 있어 칼을 갈라 외치며 간다.

<칼을 갈라> 중

지역어

게사니

→

대응 표준어

거위

살펴보기

'게사니'는 거위를 뜻하는 경상 방언입니다.
'게우, 게오, 가우, 고니, 공이, 게사이' 등 다양한 방언형이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작가 정보

유치환 (1908~1967) 시인은
경남 통영 출신입니다.

《문예월간》에서 시 <정적>을 발표하며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생명파 시인으로 불립니다.

시 작품으로는
<청마시조>, <생명의 서>, <그날> 등이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문학 속 지역어가 더 궁금하다면
국립국어원 '지역어 종합 정보'를 살펴보세요.

최초의 국어 대사전『큰사전』, 우리말샘 속으로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과 네이버(주) (대표 최수연)와 한글학회(회장 김주원)는 7월 20일(수) 오후 3시에 국립국어원에서 업무 협약식을 열고 근현대 국어사전 자료 구축 사업을 함께 추진하였다. 협약을 맺은 세 기관은 국어사전이 우리말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지나온 발자취까지도 함께 알려 줄 때 비로소 온전한 국어 지식 정보의 총체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금의 국어사전의 기틀이 된 근현대 시기의 대표적인 국어사전들을 자료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이번에 자료화하기로 한 국어사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인 『조선어사전』(1938)을 곁고 더한 『수정 증보 조선어사전』(1940, 문세영 편, 약 9만 5천 항목)과 최초의 국어 대사전인 『큰사전』(1947~1957, 한글학회 편, 약 16만 항목)이다. 두 사전은 민족 고난의 시기에 말로써 겨레의 얼을 지키고자 했던 선학들의 숭고한 업적이지만 지금은 낡은 책으로만 남아 쉽게 접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국립국어원과 네이버(주)와 한글학회는 두 사전을 정보화 자료로 구축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사전 편찬과 국어 연구에도 도움을 주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수정 증보 조선어사전』과 『큰사전』 자료 구축이 완료되면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우리말샘>(www.owpendic.korean.go.kr)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구축한 자료는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말까지 진행할 예정인데, 네이버(주)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한글학회는 사전 자료를 이미지화하고 원문을 입력하는 등 사업을 주관하기로 하였다. 국립국어원은 사업 계획 수립과 작업 지침 마련 및 자료 제공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기로 하였으며, 2023년에는 <우리말샘>에 결과물을 탑재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장소원 국립국어원장은 “이번 사업은 국어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의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정확하고 풍부한 국어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들과 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립국어원

습관적으로, 무심히 쓰는 말들이 고정 관념을 낳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별과 관련된 표현을 알아볼까요?

국립국어원

✓ 그 선수는 **처녀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했다.

○ 그 선수는 **첫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했다.

'처녀 출전' 중 '처녀'에는 성차별적인 요소가 담겨 있으므로 '첫 출전' 등으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국립국어원

✓ 올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도 **학부형**이 된다.

○ 올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도 **학부모**가 된다.

'학부형'은 예전에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던 말입니다. 학생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뜻하는 '학부모'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국어원

✓ **미망인**이 된 누나는 조카를 위해 재취업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

○ **남편을 여윈** 누나는 조카를 위해 재취업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

'미망인'은 남편을 여윈 여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으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 000의 배우자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차별과 편견이 들어간 표현보다는 적절한 표현을 찾아 써 보세요.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 문장을 위하여

법제처 법제지원국 알기 쉬운 법령팀
팀장 손문수



《심표, 마침표》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립국어원 소식지 독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손문수

국립국어원 소식지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법제처 법제지원국 알기 쉬운 법령팀 팀장 손문수입니다.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쉽표, 마침표》

분명 우리말이지만 암호같이 어렵고 알쏭달쏭한 법령이 참 많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2018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손문수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법 문장이야말로 올바른 언어의 표본이 되어야 하지요. 즉 한 나라의 법령은 그 나라 국민의 국어 수준을 반영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한자 문화권에 있었어요. 또한 근대에 이르러 일본법이 도입된 영향으로 우리 법령에는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일본어 투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법제처는 2006년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법령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수립했어요. 법률의 한글화 등 977건의 알기 쉬운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죠. 이 중 890건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법률 개정예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1,654건에 대해서도 정비를 완료했어요. 2014년에는 법령 속 일본식 한자어 같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려운 법령 용어가 많이 있어요. 이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2018년과 2019년에는 27개 부처 약 4,400개 법령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3,500개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여 법령 정비까지 추진했어요. 또한 법령은 아니지만 사실상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 속에 있는 전문 용어 등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선하기 위해 3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2022년까지 31개 부처 소관 행정규칙 3,172개를 전수조사하였고, 이 중 어려운 용어 4,393개를 발굴하여 소관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는 데 일조하고 있어요.

《쉽표, 마침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과정이 궁금합니다. 기본 원칙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정비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손문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기본 원칙은 크게 네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원칙은 모든 법령문을 한글로 표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그리고 어려운 전문 용어와 외국어 등을 우리말로 정비하는 거죠. 법령문은 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 국민이 편안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따라서 한자로 표기된 법령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한글로만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쓰거나 그 용어에 대한 뜻풀이를 함께 적도록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보통 수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다는 기준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눈높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은 명확하고 논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법령은 국민 생활의 많은 부분을 규제하고 영향을 미치기에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이해를 어렵게 하는 수식 관계는 계산식을 활용하거나 각 호로 구분하는 등 시각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 규정을 충실히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이 법령문을 어렵게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과 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 규정을 잘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입법 실무상의 편의나 법률 전문가의 관점에서 ‘관행화된 법령문 표현’이라고 해서 한글 맞춤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은 법령문이라고 해서 예외로 할 수 없기에 입법을 할 때도 어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을 매끄럽고 친근한 문체로 다듬는 것입니다. 간혹 어려운 문어적 표현이 법령의 위엄과 무게 그리고 권위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법령문의 문체도 일상생활에서 쓰는 문체와 가깝게 만들어서 읽는 사람이 잘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말의 문체를 살려서 자연스러운 법령문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실제로 정비된 사례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법령문에서 ‘개임(改任)하다’라는 용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소리만으로는 그 뜻을 짐작하기 어렵죠. 이를 ‘교체 임명’이나 ‘교체’로 바꾸었어요. ‘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기존 용어: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수도법」 제49조제1항제9호) 어떻습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 법령이 되었죠.



《선표, 마침표》 법령 정비 과정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손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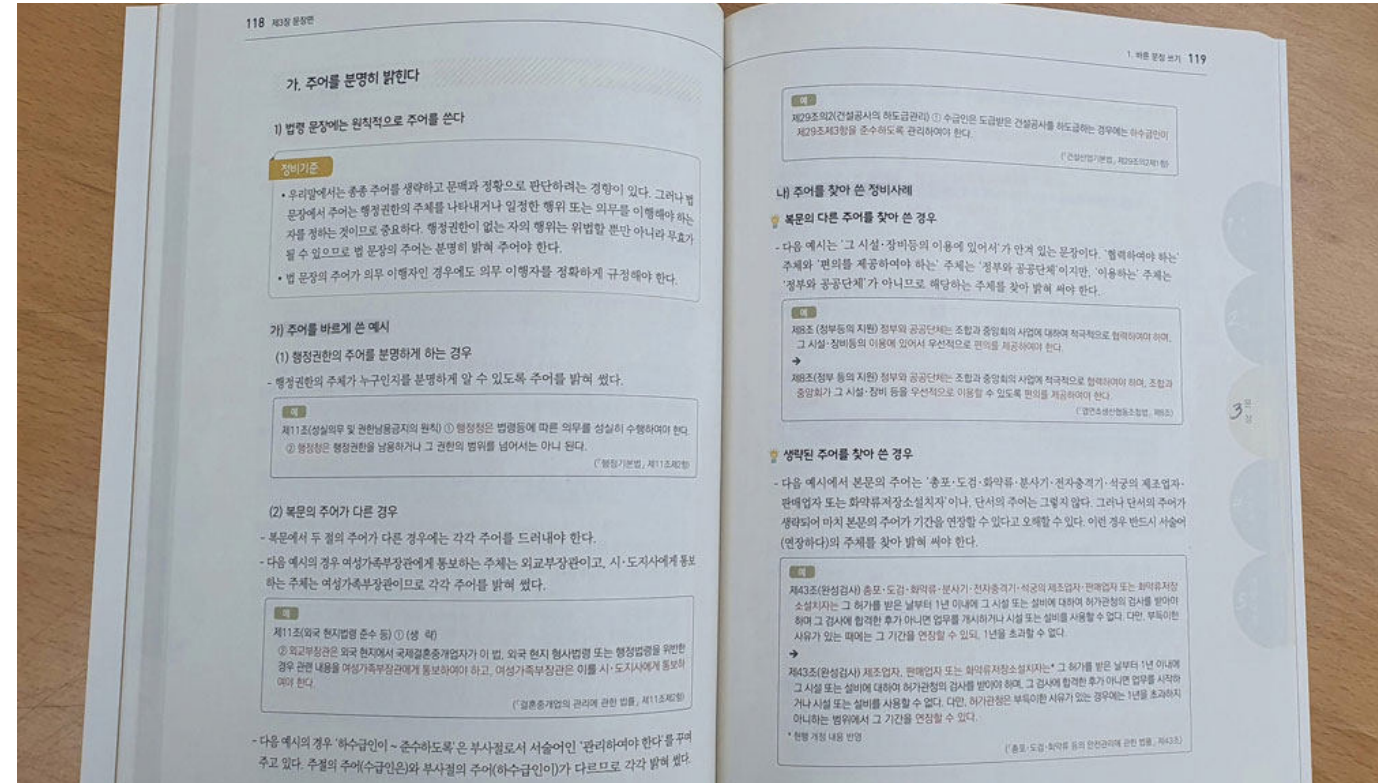
우선 법령을 알기 쉽게 고치더라도 종전 법령이 가진 의미가 변질되면 안 돼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어려운 문장이나 용어를 쉽게 고치는 것인데, 의미가 변하면 그것은 새로운 입법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서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저한’을 ‘뚜렷한’, ‘매우 큰’으로 바꾸면 ‘뚜렷이 드러나다’라는 ‘현저한’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개의(開議)는 ‘안건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다’의 의미이지만 단순히 구성원이 모여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사정족수(의사 진행에 필요한 구성원의 출석 인원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회의를 시작하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회의 용어이므로 ‘시작하다’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일한 용어라고 하더라도 문맥에 따라 적절한 용어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보통 알기 쉬운 법령 정비가 동일한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단순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용어라고 해도 그 용어가 사용되는 문맥,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등에 따라 다른 용어로 대체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당 조문 전체를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용어를 선택해야 하기에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상당(相當)하다’라는 표현도 법령에서는 ‘적절하다’, ‘상응하다’, ‘타당하다’, ‘합당하다’ 등으로 다르게 바뀌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법」 제17조 제1항을 정비할 경우 ‘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을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정비했는데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정비할 때는 ‘신고의무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사항 신고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할 때는 1월의 범위 안에서 신고기일을 정하여 신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고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사항 신고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할 때는 1개월의 범위에서 신고일을 정하여 신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비했어요. 이처럼 동일한 용어라도 다르게 정비해야 그 뜻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선표, 마침표》 법령 속의 비하 표현이나, 차별적 표현도 정비되고 있습니까?

손문수

좋은 지적입니다. 법령 중에는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차별성이 있는 용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2014년부터 법령 속의 비하 표현과 차별적 법령 용어를 비롯하여 권위적 법령 용어, 전문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의 정비를 추진하는 등 한층 심화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차별적 법령 용어 정비의 경우 성차별적인 용어와 특정 직업에 부정적 느낌을 갖게 하는 용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어감이 있는 용어는 적절한 다른 말로 바꾸어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子)’는 ‘자녀’로, ‘파출부’는 ‘가사도우미’로, ‘불구자’는 ‘신체장애인’으로, ‘맹인’은 ‘시각장애인’으로 개선했습니다.



《선표, 마침표》 이미 쓰이는 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처음부터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손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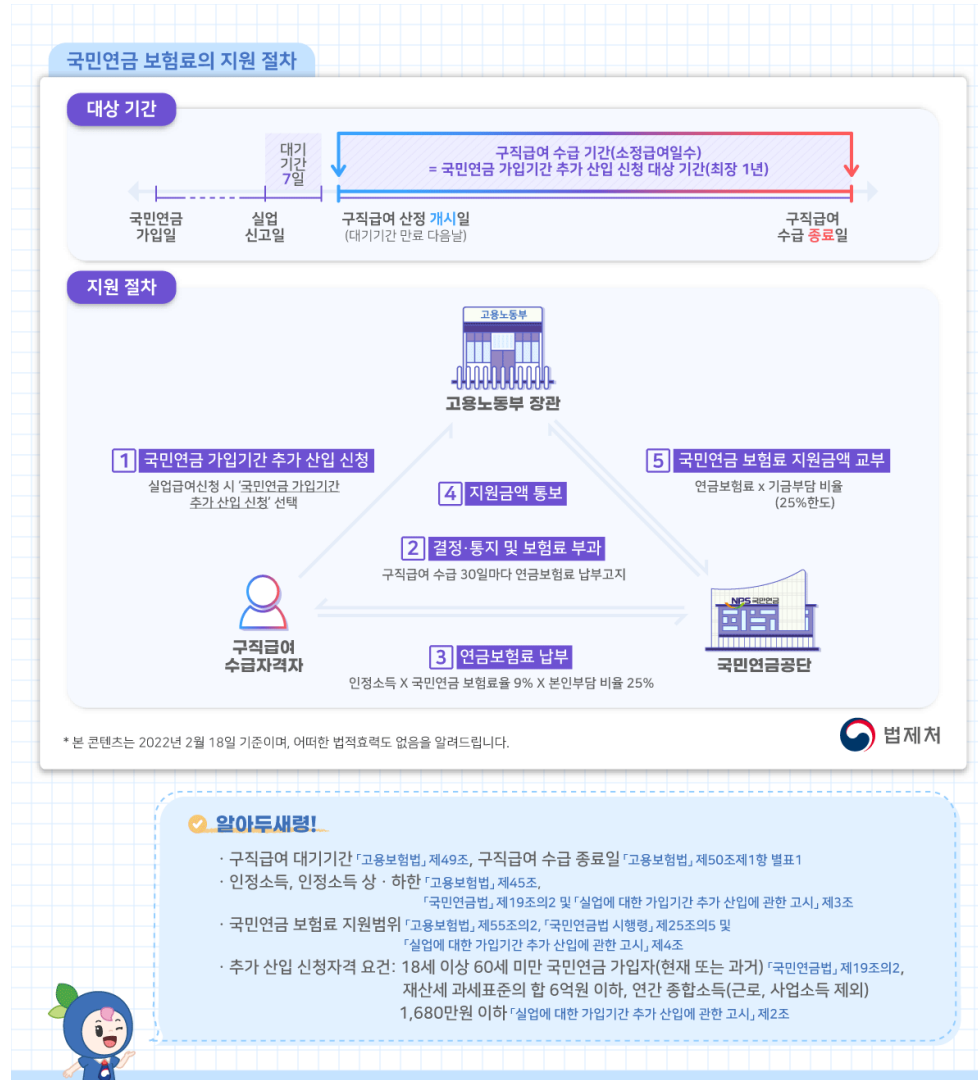
맞습니다. 법제처에서는 현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 번째 판을 만들어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있어요. 이번 열 번째 판에서는 2018년부터 집중적으로 발굴한 법령과 행정규칙 속 어려운 전문 용어에 대한 권고안을 별책으로 엮어 쉽게 용어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그럼에도 새로운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될 때 어려운 용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에 법제처는 사후정비뿐만 아니라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반영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법단계별로 검토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처협의안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289개의 부처협의안을 접수해서 어려운 용어 2,347개를 발굴하고, 이 중에서 1,833개의 용어를 심사에 반영하여 78.1%의 사전 차단율을 보였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용어 ‘헬더로우더’는 ‘화물 하역장비’로, ‘바이오마커’는 ‘생체지표’로, ‘연하훈련’은 ‘연하(삼키기) 훈련’으로, ‘스텝카’는 ‘탑승 계단차’로 개선되었어요.

다음으로 부처가 입법 예고한 법령안을 전수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는 국민이 직접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이 직접 어려운 용어와 문장체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 년도부터 25,000여건의 입법 예고안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를 차단하고 있는데, 가령 ‘동등 이상’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내구연수’는 ‘사용가능기간’ 등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되는 법령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있어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4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절차)



《심표, 마침표》

혹시 법령 정비 사업과 관련해 국립국어원에 바라는 것이 있으신지요?

손문수

지난 2019년 법제처는 국립국어원, 국회 사무처와 함께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 협약’ 체결했어요. 어려운 법률 용어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쓰는 데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죠. 이에 따라 법령 속 어려운 용어 일괄 개정과 일본식 용어 정비하는 과정에서 국립국어원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현재도 법령 용어나 문장을 정비할 때 국립국어원이 구축한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사전과 ‘우리말 다듬기’, ‘표준 전문용어’ 등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로 국립국어원의 우수한 연구 결과물을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국립국어원에서 ‘용어총괄 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야별 전문 용어가 구축되어 있어서 법령 용어 정비, 문장 정비 등의 연구 용역 사업이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개정 시 국립국어원의 자문을 받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향후 법제처가 추진하려는 문장 정비와 관련하여 국립국어원과의 협업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심표, 마침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향후 행보가 궁금합니다.

손문수

지금까지는 어려운 용어 중심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최종 목표는 법 문장 자체가 읽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상당수가 법령을 어렵게 느끼는 주요 원인으로 법령 특유의 길고 생소한 문장과 복잡한 체계를 꼽았습니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어 어문 규정을 토대로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 정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법제처 심사기준인 법령 입안 심사기준 속 대표 입법례를 쉽게 쓴 표준문장 새로 쓰기와 국민과 밀접한 대표 법령을 선정하여 전부개정안 형식으로 새로 쓴 문장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국민이 법령을 좀 더 친숙하게 여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 강은혜
사진: 본인 제공

우리말 풀기

문제 1

떡가루 빵은 것에 소금을 넣어 [채 / 체]에 내렸다.

정답 찾기 Q

문제 2

저녁에는 [주꾸미 / 쭈꾸미]를 데쳐 먹자.

정답 찾기 Q

문제 3

일은 마음부터 [추스른 / 추스린] 다음에 하자.

정답 찾기 Q

문제 4

하늘이 [끄물끄물하더니 / 꾸물꾸물하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정답 찾기 Q

문제 5

많이 긴장한 탓인지 알고 있던 문제였는데도
한순간 [헛갈렸다 / 헛갈렸다].

정답 찾기 Q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눌러 주세요.

응모 기간

2022. 7. 12. ~ 2022. 7. 26.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심표, 마침표》 2022년 8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2년 6월 호 우리말 풀기 당첨자

곽*규(2791)	안*수(6186)	정*림(0416)
김*우(4877)	이*한(8013)	조*범(9919)
남*수(2097)	정*우(0386)	주*경(1039)
박*란(8048)		

우리말 풀기

문제 1

내일이면 시험의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보여진다].

정답 찾기 Q

문제 2

김 부장은 나의 팔목을 [덥석 / 덥씩] 잡았다.

정답 찾기 Q

문제 3

[새침데기 / 새침떼기] 아가씨가
오늘은 웬일로 먼저 인사를 했다.

정답 찾기 Q

문제 4

쌍꺼풀 수술 후 눈의 [부기 / 붓기]가
아직 빠지지 않았다.

정답 찾기 Q

문제 5

지난주에 할아버지를 [찾아뵈다 / 찾아뵈었다].

정답 찾기 Q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눌러 주세요.

응모 기간

2022. 7. 27.~2022. 8. 8.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심표, 마침표》 2022년 8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2년 6월 호 우리말 풀기 당첨자

곽*규(2791)	안*수(6186)	정*림(0416)
김*우(4877)	이*한(8013)	조*범(9919)
남*수(2097)	정*우(0386)	주*경(1039)
박*란(8048)		